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 북한의 중국내전 지원과 군대창설을 중심으로 -

김선호**

1. 머리말
2. 중국내전의 발발과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
3. 북·중 군사협력관계에 따른 간부와 병력의 이동
4.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병력 구성의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인민군의 창설과정은 1946년 1월 철도경비대의 창설을 시작으로¹⁾ 그해 8월 보안간부훈련소(保安幹部訓練所)와 보안간부훈련대

* 이 논문은 2016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1)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總結報告』, 北朝鮮人民保安局, 1946.11.1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군노획문서.

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가 창설되면서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1단계 창설과정에 투입된 군사간부와 병력 가운데 상당수는 해방 직후 중국 동북(東北)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들이었다. 대표적으로 1946년 여름에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을 맡은 강건(姜健)은 해방후 연변(延邊)에 파견되어 동북민주연군²⁾ 길동군분구(東北民主聯軍 吉東軍分區) 사령원(司令員)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이다.³⁾ 강건 이외에도 김광협(金光俠), 이익성(李益成), 최광(崔光) 등 인민군 창설작업에 투입된 다수의 군사간부가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하였다.

이와 함께, 해방 이후 북한정치세력과 중국공산당은 건국과 중국 내전의 과정에서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1945년 12월부터 비밀리에 군사연락망을 구축하고, 군사협력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은 열세에 놓인 중국공산당군대에게 후방기지와 교통로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군사협력과정에서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군사간부와 병력이 입북해 인민군 창설사업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건국과정은 내부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북중 군사협력관계⁴⁾ 속에서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학계에서 처음으로 1947년 초 김일성(金日成)이 수만명의 북한군대를 동북지방에 파병했다는 동북

2) 동북민주연군은 해방 직후 중국공산당이 동북지역에 조직한 군대이다. 중국공산당은 1945년 9월에 동북지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東北人民自衛軍을 창설했고, 1946년 1월에 이를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동북민주연군은 중국내전을 거치면서 中國人民解放軍 第4野戰軍에 편입되었다.

3) 길재준·리상진,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18쪽.

4)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에 중국지역과 북한지역에는 국민국가가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1945~1947년에 진행된 양 지역의 군사협력관계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당과 정권기관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시기 양 지역의 관계는 향후 수립된 북한·중국정부의 국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계에 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북중관계와 북중 군사협력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파병설(東北派兵說)을 주장하였다.⁵⁾ 백학순과 박명림도 미군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공내전시기에 중국공산당에게 후방기지를 제공하고 군부대를 파병했다는 사실을 분석한 바 있다.⁶⁾ 이종석은 1946~1947년 중국내전 시기 북한이 중국공산당에 후방기지·교통로·전략물자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측이 동북지방에 직접 군대를 파병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⁷⁾

김상원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치사회분야에서 5개 범주에 걸쳐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한 사실을 해명하였다. 그 역시 중국내전 시기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제공한 군사지원을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였다.⁸⁾ 이상숙은 중국내전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원과, 중국공산당의 대북한 경제지원을 연구하였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 등 물질적 지원이 북한정권 수립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으며, 북중 경제협력의 원형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⁹⁾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해방 이후 북중간의 군사협력 구축과정과 북한이 중국측에 제공한 군사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해방 이후 북중관계를 주로 북한이 중국측에 제공한 군사지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물론, 중국공산당이

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358.

6) 백학순, 「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 『한국과 국제정치』10-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4, 263~281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나남, 1996, 243~247쪽.

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52~77쪽.

8) Kim Sang Won,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7, No.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14.6, pp. 91~113.

9) 이상숙, 「국공내전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北韓研究學會報』20-1, 북한연구학회, 2016, 209~231쪽.

북한에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해명되었지만, 군사적 지원은 해명되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는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제공한 군사간부병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이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 북중관계는 양측의 정치·경제·군사적 협력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군사협력관계는 인민군의 창설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조선혁명·중국혁명”으로 불리는 북한·중국의 국민국가 건설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¹⁰⁾ 이 혁명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 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조선인들은 조선혁명 뿐만 아니라 중국혁명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혁명과정에서 간부·병력·무기·물자를 양측의 경계 안으로 이동시켰고, 이를 통해 준국경(準國境)¹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민국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해명은 ‘혁명’의 경계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명하고자

10)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부터 ‘인민공화국’ 건립을 목표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고, 중국공산당은 해방 이전부터 ‘연합독재국가’를 목표로 ‘신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이 혁명의 공통점은 노·농·독재에 기반한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이 아니라 계급연합에 기반한 인민정권의 수립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으로 불렸으므로, 이 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金日成,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야』, 朝鮮共產黨清津市委員會, 1946.3, 10쪽; 모택동, 『신민주주의론』(1940.1), 『모택동선집』2(朝鮮文), 민족출판사, 1992, 843~844쪽.

11)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에 동북지역과 북한지역 사이에는 국민국가적 개념의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 지역은 지리적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 경계는 일종의 ‘국경’으로 인식되었으며, 경계를 수비하는 부대도 존재했다. 예컨대, 북한정치세력은 “조만국경경비대”라는 경비부대를 조직해 이 경계선을 수비했다. 이 글에서는 이 혁명시기에 국경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가 존재했다는 의미로 準國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다. 제2장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군사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¹²⁾과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¹³⁾의 역할을 확인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에 따라 북한정치세력과 중국공산당 간에 실제로 진행된 간부와 병력의 이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핵심쟁점인 북한군대의 동북파병설을 집중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중국의 간부·병력 이동이 인민군의 창설과정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1946년부터 동북 지역에서 입북한 병력을 조선의용군부대·훈춘보안단, 동북군정대학(東北軍政大學)의 졸업생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¹⁴⁾ 이 장에서는 입북병력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공간된 중국문헌, 북한이 2000년 이후 새로 발간한 ‘동북해방전쟁’에 관한 문헌, 필자가 찾은 미군노획문서, 주한미군의 정보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12) 조선의용군은 1942년 7월 조선의 민족주의-공산주의세력이 중국 화북지역 태항산에서 조직한 무장부대이다. 이 부대의 모체는 1938년 10월 중국武漢에서 창설된 朝鮮義勇隊이며, 이 부대의 정치지도기관이 朝鮮獨立同盟이다. 조선의용군은 1945년 8월 11일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동북지역으로 진출해 4개 지대로 확편했으며, 그후 중국내전에 투입되면서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었다.

13) 동북항일연군은 1936년 2월부터 중국공산당이 동북지역에 조직한 중국인-조선인들의 연합 무장부대이다. 동북항일연군은 1941년부터 소련으로 이동해 東北抗日聯軍教導旅(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로 개편되었다. 교도려는 1945년 8월에 부대를 2개로 나누어 각각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동북으로 진출한 부대는 동북인민자위군에 편입되었고, 북한으로 진출한 부대는 인민군의 모체가 되었다.

14) 김중생,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37~141쪽; 이종석, 앞의 책, 117~119쪽.

2. 중국내전의 발발과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자, 중국 동북지역은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동북지역을 장악한다면 소련과 조선을 정치·군사적으로 삼을 수 있고 풍부한 자원과 공업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동북(東北)·화북(華北)·서북(西北)의 3개 근거지를 연결함으로써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대로 중국국민당이 동북을 점령한다면 공산당은 풍부한 자원과 공업기지를 상실할 뿐 아니라 관내의 근거지가 남북에서 협공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이같은 정세인식에 따라 해방 직후 관내에 있던 10만명의 병력과 2만명의 간부를 동북으로 급파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중국국민당도 수많은 접수요원을 동북에 파견하였다.¹⁵⁾ 국민당은 1945년 겨울부터 미국의 원조 아래 선박과 항공기로 대규모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시켰다.¹⁶⁾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5년 10월 주요간부를 동북지역에 파견하여 동북근거지를 개척하라고 지시하였다. 주요간부는 하경적(賀慶積), 옹문도(雍文濤)¹⁷⁾ 등 50여 명이였다. 중앙당 간부 중 일부는 장춘(長春)에 남았고, 다수의 간부는 동북지역 각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무장대오를 확대하고, 정권을 인수하며, 근거지를 창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¹⁸⁾ 이와 동시에 중국공산당

15)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이하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 발자취총서5 : 승리』(朝鮮文), 민족출판사, 1992, 1~2쪽.

1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著, 金冲及 主編, 『走向勝利』, 名流出版社, 1997, 592쪽.

17)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명에 한자를 병기했으나, 일부 인명은 자료에 한자가 없어 병기하지 못했다.

18) 운봉·요작기, 「광복후 연변인민무장력의 건립과 발전경과」,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이하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연변문사자료 제9집-해방초기의 연변』, 료녕민족출판사, 2000, 36쪽.

은 10월에 중국공산당 동북국(東北局)과 남만분국(南滿分局)을 조직하였고, 이후 심양(瀋陽)에서 동북민주연군을 창설하였다.¹⁹⁾

1945년 12월 말 당시, 국민당군대는 89개 보병군(步兵軍), 2개 기병군(騎兵軍), 242개 사단에, 45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당은 동북지역에 동북행원(東北行轅)을 설치하고 8개 군을 배치했다. 1945년 12월 말 당시, 공산당군대는 61만명의 야전군(野戰軍), 66만명의 지방부대·후방기관 등 총 127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 창설된 동북민주연군은 3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45년 12월 말 당시 국민당군대와 공산당군대의 병력수는 3.5 대 1로 국민당군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²⁰⁾

국민당군대는 1945년 11월부터 동북지역에서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국민당군대는 11월에 요녕성(遼寧省) 호로도(葫蘆島)에 상륙한 후, 동북지역의 대문인 금주(錦州)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장개석은 1946년 1월부터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내전을 개시하였다. 국민당군대는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진공작전을 펼쳐 산해관(山海關)·금주·심양(瀋陽) 등 동북지역의 요충지를 점령하였다. 중국내전은 관내(關內)에서는 소규모 충돌로 진행되었으나, 동북지역에서는 대규모 충돌로 전개되었다. 동북전쟁(東北戰爭)에 투입된 국민당군대는 5월에 이르러 15개 군(軍), 51만명으로 증원되었다.²¹⁾

동북지역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1946년 5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군이 동북지역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3월 11일부터 심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철수하기 시작

19) 김운룡, 「리홍광지대, 길림성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정협 문서자료위원회(이하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길림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1995, 350쪽.

20) 林補法, 『戰後中國的變局 : 以國民黨爲中心的探討』, 臺灣商務印書館, 2003, 103~108쪽.

21) 장옥지, 「길림성민주련맹 시말」,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앞의 책, 343~346쪽.

했고, 최종적으로 5월 3일 전체 동북지역에서 철수를 완료하고 소련 경내로 이동하였다.²²⁾ 국민당군대는 소련군이 철수하자 정전합의를 깨고, 동북 전체지역에서 공산당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국민당 제71군은 6월 7일 길림성(吉林省) 교하현(蛟河縣) 일대를 침공하였다. 이에 따라 주보중(周保中) 부사령 등 동북민주연군 지도부는 6월 상순에 둔화(敦化)에서 군사회의를 개최해 반격 계획을 수립하였다.²³⁾

동북지역의 중국공산당군대는 국민당군대에 비해 압도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국민당군대가 동북지역의 교통중심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관내와 동북지역의 교통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만주와 북만주, 관내(關內)와 관외(關外)²⁴⁾를 연결할 수 있는 북한지역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의 입장에서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군대를 몰아내고 동북지역을 장악한다면 북쪽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²⁵⁾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은 해방 직후부터 고위급 연락체계를 구축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양측은 1945년 11월부터 비밀채널을 통해 동북전쟁과 관련한 군사지원문제를 긴밀히 협의했다. 북·중간의 군사협력은 중국공산당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북한에 군사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1945년 11월 중순이다. 당시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遼寧軍區) 사령원이던 소화는 김일성에게 군사지원문제에 관한 긴급회담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11월 29일 직접 중국 안동(安東)

22) 孟宪章·楊玉林張宗海, 『蘇聯出兵中國東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5, 260쪽.

23) 중공연변주위당사연구소 편찬, 『중공연변당조직활동년대기』, 연변인민출판사, 1989, 292~294쪽.

24) 관내와 관외는 河北省 秦皇島에 있는 山海關의 안과 밖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산해관은 중국본토의 관문이다.

25) 丁雪松 外, 「回憶東北解放戰爭時期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遼瀋決戰』(上), 人民出版社, 1988, 624쪽.

으로 건너갔다. 김일성과 소화는 안동회의에서 동북전쟁에 관한 긴급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지역을 공산당군대의 이동경로로 활용하는데 합의하였고, 북한측은 열차·자동차·선박을 동원해 부대의 이동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²⁶⁾

또한, 1946년 봄에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부서기 진운(陳雲)이 모택동(毛澤東)의 밀서를 가지고 직접 평양에 파견되었다.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동북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일성은 무기지원문제를 승인했다. 북조선분국은 중국측에 10만 여정의 무기와 포를 지원했고, 포병연대와 공병부대를 조직해 만주로 파견했다고 한다.²⁷⁾ 이 무기들은 해방 직후 소련군사령부가 일본군으로부터 압수한 무기였다. 북한은 총과 포 외에도 동북지역에 “황색폭약” 등 각종 폭약을 제공했다. 이 폭약은 동북전쟁에서 교량과 요새화된 화점을 폭파하는데 사용되었다.²⁸⁾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1946년 4월 7일 동북민주연군 후근부 군수공업부를 통화(通化)에서 길동(吉東)지역 후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수공업부의 기계·물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함북 온성군 남양면과 경원군 훈흥리 구간의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군수공업부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총 “300여 바꾼”의 기계와 물자를 북한 철도를 통해 훈춘(琿春)으로 수송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동북민주연군이 소련군에게 양도받은 귀금속·기계·화학원료도 대련(大連)에서 북한을 거쳐 훈춘으로 수송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폭약, 류산, 초산, 염산, 유색금속선철, 콕스 등의 원자재를 지원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 직접 간부를 파견해

26) 김재준·리상진, 앞의 책, 173~175; 182~183쪽.

27) 김재준·리상진, 앞의 책, 312쪽; 김일성,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 임무이다」(1948.10.23), 『김일성전집』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85쪽.

28) 김재준·리상진, 앞의 책, 101~102쪽.

원자재를 구입했다. 이후 국민당군대가 길동지역 후방까지 공격하자, 군수공업부는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왕봉원 부부장을 북한에 파견했다. 양측은 군수품 생산공장을 함북 경흥군 아오지에 있는 석유공장터로 옮기기로 합의하였다.²⁹⁾

북한의 동북전쟁에 대한 군사지원은 연변자료와 조선의용군 출신의 증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동북전쟁 당시, 동북민주연군 후근부(后勤部) 군사공업부에서 근무한 중국인 간부는 동북전쟁시기 북한의 지원에 대해 “군수공업부가 통화로부터 훈춘으로 옮겨 올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기의 나라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와 철도수송과 인력이 부족한 난제를 풀어주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쓰련과 조선에서 지원해준 원자재는 급시우(急時雨)마냥 우리가 군수공업생산에서 부딪친 곤난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는 바, 해방전쟁 원호사업에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³⁰⁾

훈춘에서 조선의용군 제5지대에 입대한 리복룡에 따르면, 동북지방의 중국공산당군대는 조악한 무기로 국민당과 싸웠다. 그는 “그땐 우리 병기공장에서 병기생산이 잘 안됐다. 그때 폭탄은 조선 것을 썼다. 이것은 북한에서 해준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남만의 중국공산당군대는 국민당군 제684사단에 의해 퇴로가 막혀 부상병을 후방으로 보낼 수 없었다. 이 부상병들은 북한의 신의주와 도문(圖們)을 거쳐 연길(延吉)로 이동했다. 또한 당시 심양에는 동북민주연군의 무기공장이 있었는데, 국민당군대 때문에 무기공장을 옮길 수 없었다. 북한은 이 무기공장의 이전사업을 지원하였다.³¹⁾

1946년 초부터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데에는 해방 직후 구축된 양측의 통신연락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29) 연군, 「훈춘의 군수품생산기지」,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50~251; 258쪽.

30) 연군, 「훈춘의 군수품생산기지」,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58~259쪽.

31) 정현수 외, 「중국 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2006, 31; 170쪽.

했다. 주보중과 김일성은 각각 동북지역과 북한에서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도 무전으로 연락관계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45년 10월 14일 주보중에게 간부과건문제에 대해 무전을 발송했다.³²⁾ 또한, 주보중은 1946년 3월 28일 함북 온성군 남양으로 입북해 김일성과 회담했는데, 북한측은 회담 이후 동북지역에 창설된 조선인부대와 북한 사이에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박영순(朴英順)을 중국에 파견해 북한과 연변 지역 사이에 무전과 전화를 이용한 통신망을 구축하였다.³³⁾ 중국공산당 동북국도 1946년 5월 18일 “동북국 도문판사처(圖們辦事處)”를 설치하고, 도문에 무선통신소를 설치했다. 도문판사처는 이 무선통신소를 통해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와 연락해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했다.³⁴⁾

이와 동시에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동북지역의 조선인 병력을 활용해 북한에 군대를 창설하려고 계획하였다. 1946년 3월 1일경,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보안기구를 강화하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평양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측 참석자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최용건(崔庸健)·김일(金一)·김성국(金成國)과 조선의용군 출신의 무정(武亭)·김웅(金雄)이었다. 소련측에서는 제 25군사령부 참모부와 소련민정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보안간부훈련소 설립문제와, 이를 위한 준비문제였다.³⁵⁾

양측은 동북지역에 있는 조선의용군의 간부와 병사들을 입북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간부와 병사들을 먼저 철도경비대에 배치하고, 보

32) 周保中, 『東北抗日遊擊日記』, 人民出版社, 1991, 828쪽.

33) 길재준·리상진, 앞의 책, 186~188; 191; 313쪽.

34) 장택민 구술, 「동북총국 도문판사처에서의 지난날」,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52; 356쪽.

35) USAFIK, *ISNM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이하 북한정보요약)』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10쪽.

안간부훈련소가 설치되면 그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후 철도경비대를 보안간부훈련소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³⁶⁾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주요간부들과 보안국 수뇌부는 1946년 4월 북·소 합동회의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철도경비대의 조직절차와 동북지역 조선의용군의 입북절차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1946년 4월 하순, 북한정치세력과 조선의용군 교섭대표자들의 합동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의용군 대표자들은 6월에 조선의용군 간부들이 북한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정치세력과 중국공산당은 1945년 11월 중순부터 비공식 연락망을 통해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11월 중순에 출현하기 시작해, 1946년 3~4월에 북한·중국·소련 대표자들의 합동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 결과, 북한정치세력은 중국내전에 필요한 군수물자·교통로·후방기지를 제공했고,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병사들의 입북을 허가함으로써 인민군 창설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은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었다. 이처럼 중국내전과 인민군 창설사업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 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3. 북·중 군사협력관계에 따른 간부와 병력의 이동

1946년 3~4월에 걸쳐 소련군사령부, 중국공산당 동북국, 동북지역

36)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0쪽.

37)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1쪽.

의 조선의용군, 북한정치세력은 비밀회의와 상호접촉을 통해 북·중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보안간부훈련소 창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인민군의 건군사업이 개시되었다. 1946년 여름, 김일성은 김일과 최현(崔賢) 등 동북항일연군 출신을 불러 보안간부훈련소의 창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일과 최현은 신의주와 강계로 파견되었고, 강건, 최춘국(崔春國), 류경수(柳京守), 김경석(金京石)은 개천, 나남, 정주, 회령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보안간부훈련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병력을 모집했다. 아울러 김일성은 지방의 공산당 조직에 노동자·농민의 자녀들을 선발해 보안간부훈련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1946년 8월에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제2소·제3소가 창설되었고, 각 분소가 조직되었다.³⁸⁾

보안간부훈련소의 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지역 청년들이었다. 보안간부훈련소의 각 분소는 주둔지역 청년들을 입대시켜 교육하였다.³⁹⁾ 그러나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은 북한 청년들이 아니었다.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와 제2소는 1946년에 강건이 동북지역에서 데리고 입북한 조선인 병력을 주축으로 창설되었다.⁴⁰⁾ 강건의 입북시기는 1946년 7월이다.⁴¹⁾ 또한, 1946년에 2,000여 명의 훈춘보안단 병력과 500명의 “조양천교도대(朝陽川教導隊)” 1기생이 입북해 각 보안간부훈련소에 분산·배치되었다.⁴²⁾ 조양천교도대 졸업생의 정확

38)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69-370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2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128쪽.

3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1-解放과 建軍』,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680쪽.

40)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역사비평사, 1988, 365쪽.

41) 리창역, 「강신태의 군대생애」,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00쪽. 姜信泰는 강건의 본명이다.

42) 김중생, 앞의 책, 141쪽.

한 입북시기는 8월 23일이다.⁴³⁾ 강건이 지휘해 입북한 병력의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병력은 최소 2,500명이다.

훈춘보안단의 모체는 김일성부대의 아동단원 출신인 남만우가 1945년 9월 강건의 명령에 따라 조직한 훈춘별동대(琿春別動隊)이다. 훈춘별동대는 1945년 11월에 훈춘보안대로 확편되었고, 1946년 3월에 4개 대대를 보유한 연대급부대로 확대되었다.⁴⁴⁾ 훈춘보안대의 정치책임자는 동북항일연군 출신 한창봉이었다.⁴⁵⁾ 훈춘보안단에는 조선의용군 병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용군 제5지대는 2개 중대(300명)를 훈춘에 보냈는데, 이 병력이 훈춘보안단에 합병되었다. 그 결과 보안단의 중하위 간부는 제5지대 간부들로 구성되었다.⁴⁶⁾ 즉, 훈춘보안단의 모체는 강건의 명령에 따라 김일성의 직계 인물이 창설하였고, 정치책임자는 항일연군 출신이었으며, 보안단에는 조선의용군 5지대 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46년 여름부터 조선의용군의 병력이 입북하기 시작했다. 조선의용군 제1지대와 제7지대에서 다수의 장병들이 집단적으로 입북해 북한군대에 편입되었다. 또한, 연안 조선혁명군정학교 출신의 교원과 학생들도 입북해 북한의 노동당, 정부기관, 군대의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후에도 조선의용군 제3지대 지대장 이상조(李相朝), 참모장 김연, 정치부 주임 정경호(鄭京浩) 등 동북지역의 조선인 가운데 우수한 간부와 지식인들이 계속 입북하였다.⁴⁷⁾ 동북지역의 조선인 병력은 1946년 7월부터 입북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보안간부 훈련소에 입소했다.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력의 이동은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의 합의의 결과였다. 양측은 조선혁명을 추진하

43) 金洪範, 『幹部履歷書』,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

44) 남만우, 「장군님품으로 가는 길」,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이하 회상기)』2,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46~48쪽.

45) 길재준·리상진, 앞의 책, 49쪽.

46) 김중생, 앞의 책, 139~141쪽.

47) 강창록·김영순이근전·일천, 『주덕해』, 실천문화사, 1992, 149~150쪽.

는데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입북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준국경을 넘어 인민군 창설사업에 투입되었다.

1946년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북한지역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간부와 병력도 동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쟁점은 북한군대의 동북파병설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1947년 초 김일성이 수만명의 북한군대를 동북지역에 파병했다는 동북파병설을 주장하였다.⁴⁸⁾ 다른 연구자들도 그의 연구를 받아들여 동북파병설을 주장하였다.⁴⁹⁾ 이 주장의 자료적 근거는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였다. 미군은 1947년 4월 말, 김책(金策)이 약 3만명의 북한병력을 지휘해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⁰⁾ 김책은 1946년 1월 평양학원(平壤學院) 초대 원장을 맡았지만,⁵¹⁾ 원장을 기석복(奇石福)에게 넘겨준 후,⁵²⁾ 1946년 8월부터 북조선노동당 상무위원으로 당사업에 전념하고 있었다.⁵³⁾ 김책은 1946년 8월부터 1948년 2월까지 한번도 군사간부를 맡은 적이 없다. 또한, 미군의 정보망이 가동되는 사실을 알고 있던 북조선노동당이 중앙당 상무위원을 군사지휘관으로 임명해 동북지역에 파견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주한미군의 정보는 오류와 진실을 동시에 담고 있다. 미군이 오판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용군 출신과 동북항일연군 출신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군은 최용건과 강건을 1947년 10월 시점까지 “조선의용군(Ui Yung Goon)” 출신으로 파악하

4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p. 358.

49) 백학순, 앞의 논문, 274쪽; 박명림, 앞의 책, 243~247쪽.

50)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23쪽.

51) 김일성, 『김일성전집』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82~283쪽.

52) 雲谷, 「平壤學院創立 一週年 紀念記」, 평양학원, 『새三千里』2·3월호, 평양학원편집부, 1947.3.26, 186쪽.

53)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회의록」, 『북한관계자료집』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176쪽.

고 있었다.⁵⁴⁾ 김책이 3만명을 지휘해 이동했다는 내용의 바로 아래에는 강건이 길동군분구 사령원으로 동북지역의 조선인병력을 지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강건이 함경북도 “보안대대부(BoAnTaeDaeBoo)” 부대장이라는 또다른 정보가 보고되어 있다.⁵⁵⁾

미군은 북한지역의 동북항일연군과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들은 북한에서 병력을 지휘해 동북지역으로 간 인물을 김책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지휘관은 조선의용군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군은 강건이 해방후 동북지역에서 길료군구(吉遼軍區) 길동군분구 사령원으로 활동하다가 1946년 7월에 입북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강건이 나남의 보안간부훈련소 소장이라는 정보와 길동군분구 사령원이라는 정보가 같은 보고서에 동시에 보고된 것이다. 미군이 오판한 근본적 이유는 1946년에 중국내전이 발발하면서 동북지역·북한지역에서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수시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미군은 북한으로 피신한 중공군(조선인 포함)의 만주 복귀나, 북한지역을 경유한 중공군의 부대이동, 유사시를 대비한 북한군의 국경지대 병력이동 등을 북한군의 동북지역 파병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⁵⁶⁾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미군은 중국공산당군대가 1946~1947년동안 북한지역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미군은 같은 정보보고서에서 1947년 3~5월에 북한에 있던 조선인병력이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병력은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선발된 병력이며, 평북지방에서는 특히 강계에서 집중적으로

54)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05쪽; USAFIK, ISNK, No.46(1947.10.1~10.15),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439쪽.

55)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23쪽.

56) 이종석, 앞의 책, 70~71쪽.

차출되었다. 이중 많은 병력이 동북민주연군 길동군분구에 배치되었다.⁵⁷⁾

학계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도 동북파병설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에 공간된 북한문헌은 1945년 10월 말, 남만주의 조선의용군부대가 사단규모로 성장해 리홍광지대(李紅光支隊)로 개편되었으며,⁵⁸⁾ “이 시기 평안북도에서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중국에 건너가 리홍광지대에 망라”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문헌은 북한의 청년들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평안북도에서 통화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통화로 건너간 청년들은 리홍광지대에서 박정덕의 지휘 하에 활동하였다. 그러나 박정덕은 동북항일연군이나 북한에서 파견한 인물이 아니라 해방 직후 남만지역에서 나와 조선인 대대를 창설한 인물이다.⁵⁹⁾

북한문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평북지방에서 무장부대를 이끌고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군사간부가 있다. 안효덕은 1930년부터 길림지역에서 김일성·차광수(車光洙)와 함께 활동했고, 1937년 11월에 평북 의주에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인 “룡만동지회(龍灣同志會)”를 조직해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1945년 3월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해방후 출옥했다. 안효덕은 해방후 평북 의주군에서 용만동지회를 조직적 기반으로 어적도무장대(於赤島武裝隊)와 피현무장대(枇峴武裝隊)를 조직했다. 그는 1946년 10월초 자신의 무장대를 이끌고 평안북도 청년 수천명과 함께 동북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동북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청년들은 모두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 리홍광지대에 편입되었다.⁶⁰⁾

57)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23쪽.

58) 남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 제1지대가 동북민주연군 리홍광지대로 개편된 정확한 시기는 1946년 2월 23일이다. 북한문헌은 리홍광지대가 설립되기 이전 남만주의 무장부대를 모두 리홍광지대로 서술하고 있다. 고응석, 「남만에서 싸운던 날에」, 『리홍광지대』, 230쪽.

59) 길재준·리상진, 앞의 책, 59; 149~150; 311쪽.

북한의 동북파병 주장은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청년들이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와 회고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정치세력은 1945년 8월부터 실시해온 조·만(朝滿) 접경지역의 북한청년들에 대한 모병사업을 1946년 3월부터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선의용군이 동북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던 확군 사업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⁶¹⁾ 북한정치세력은 평북·함북 등 조·만 접경지역에서 모병사업을 중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년들이 조선의용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실제로, 해방후 평안북도에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군에 입대한 인물이 있다. 대표적 인물이 리홍광지대 대원 “오군”이다. 그는 해방 당시 평안북도 강계에 살고 있었다. 오군은 1946년 1월 초 강계에서 “조선의용군 총사령 무정”의 사진이 실려 있는 뼈라를 보게 된다. 뼈라내용은 “조선청년들에게 용약 조선의용군에 참가하여 조국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라고 호소하는 격문”이었다. 오군은 이 뼈라를 보고 강계에서 통화시로 건너가 “조선의용군사령부 대훈과”에 가서 입대등기를 마쳤다. 오군은 1월 20일 조선의용군사령부로부터 “입대통지”를 받고 “기포대대 박격포 2중대”에 배치되었다.⁶²⁾

오군의 회고에서 주목할 점은 1946년 1월 당시 조선의용군이 평북 강계 인근에 참군을 호소하는 뼈라를 살포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북·중 경계를 넘어 북한지역에

60) 장보옥, 「령도자의 추억속에 빛나는 삶을 두고」, 『회상기』2, 31~37쪽. 장보옥은 안효덕의 아내다. 안효덕은 리홍광지대 지휘관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11월 遼寧省 寬甸縣에서 전사하였다. 龍灣은 의주의 옛지명이고, 於赤島는 의주군 의주면 어적동 앞의 압록강에 있는 섬이며, 枇峴은 의주군 피현면을 가리킨다. 북한지역 정보넷(<http://www.cybernk.net>, 2017년 2월 15일 검색)

61)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0쪽.

62) 오군, 「승리의 개선가를 울리던 그날」, 『리홍광지대』, 203~205쪽.

직접 들어와 북한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사업(招募事業)을 전개하였다.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에 입대했다는 보다 유력한 증거는 리홍광지대 제1대대 제2중대장을 역임한 고응석의 증언이다. 그는 1945년 10월 6일에 조직된 “동북인민자위군 통화부대(東北人民自衛軍 通化部隊)”에서 활동했다. 통화부대는 1945년 11월 팔로군(八路軍) 주력부대와 함께 집안현성(集安縣城) 전투에 참전했다. 고응석에 따르면, 통화부대는 집안현성전투를 치른 후 “집안과 조선의 만포, 강계에서 온 허다한 청년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⁶³⁾ 고응석은 1945년 11월 이후에 평북 만포·강계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동북지역으로 건너와 동북인민자위군 통화부대에 입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에 입대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미군노획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권명준(權明俊)은 1949년 7월에 동북지역에서 입북해 인민군 제6사단 통신중대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그의 경력란에 “1946년 신의주 로동신문사 취직, 1947.7.1. 안동경위연대 참군, 48년 4월 3일 리홍광지대 203사 3단 2영 통신반 전사”라고 적혀있다.⁶⁴⁾ 그는 1946년에 평북 신의주에서 로동신문사에 다니다가 1947년에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7월 1일에 안동경위연대(安東警衛聯隊)에 입대하였다. 권명준은 그후 동북민주연군 리홍광지대 전사로서 중국내전에 참전하였다. 그의 사례를 보면, 1946년도 뿐만 아니라 1947년도에서 평안북도의 청년들이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리홍광지대에 입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에 입대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둘째, 포병연대와 공병부대를 파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동북지역 중국공산당군대의 편제와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63) 고응석, 「남만에서 싸운던 나날에」, 『리홍광지대』, 216~220쪽.

64) 「(제목없음)」, NARA, RG 242, SA 2010, Box 4, Item 9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나남, 1996, 728쪽에서 재인용.

먼저, 북한지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입대한 리흥광지대에는 포병연대나 공병부대가 없었다. 리흥광지대는 1946년 2월 창설 당시 4개 보병대대, 교도대대, 기포중대, 통신중대, 경위중대로 편성되었고,⁶⁵⁾ 12월초 동북민주연군 독립 제4사로 개편된 이후에는 3개 보병연대, 군정학교, 직속중대로 편성되었다.⁶⁶⁾ 길림의 조선의용군 제7지대(이후 樺甸保安團)에도 포병부대나 공병부대는 없었다.⁶⁷⁾ 다만, 동만주의 조선의용군 제5지대에 207명으로 편성된 포병중대가 있었다.⁶⁸⁾ 그리고, 제5지대 대원을 기간으로 조직된 포병부대는 이후 동북민주연군의 포병대대와 포병연대로 확편되었다.⁶⁹⁾ 따라서 북한이 파병했다는 포병연대와 공병부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1946년 1월과 7월 당시 동북인민자위군과 동북민주연군에 소속된 연대의 병력은 각 연대별로 300명부터 1,600명까지 큰 편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길동군분구 경비1여단의 경우, 연길보안연대는 1,200명, 화룡(和龍)보안연대는 800명, 안도(安圖)보안연대는 400명으로 편성되었다. 경비2여단의 경우, 둔화(敦化)보안연대는 1,600명, 액목(額穆)보안연대는 300명으로 편성되었다.⁷⁰⁾ 평북지역의 청년들은 1946년 1월부터 1947년까지 계속해서 동북지역의 군대에 입대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넘어간 조선인 병력이 당시 동북민주연군의 1개 연대규모를 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는 주둔지역 인근의 조선인들을 모병해 창설되었고, 다른 부대로 편입될 때에도 중대단위로 집단으로 배속되었다. 예를 들어, 남만주의 철영조선의용단(鐵嶺朝鮮義勇團)은 철

65) 김중생, 앞의 책, 83~84쪽.

66) 최강, 「조선의용군 제1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52쪽.

67) 김중생, 앞의 책, 107~108쪽.

68) 염인호, 『또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2010, 436쪽.

69) 감응삼·김환, 「조선의용군 제5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84쪽.

70) 운봉·요작기, 「광복후 연변인민무장력의 건립과 발전경과」,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40~41쪽.

영현의 조선인청년단을 모체로 건립되었으며, 홍경현경위대대에는 조선인중대가 별도로 조직되었다. 1946년 3월, 철영조선의용단의 3개 중대는 집단적으로 제1지대에 편입되었고, 1개 중대는 팔로군부대 제70여단 포병중대로 전환되었다. 홍경현경위대대의 조선인중대는 1948년 제164사단에 집단적으로 편입되었다.⁷¹⁾ 동북민주연군의 군대창설방식과 부대편제방식을 볼 때, 북한지역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동일한 중대·대대에 편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철영조선의용단의 1개 중대가 팔로군부대의 포병중대로 전환된 사례처럼, 북한청년들로 구성된 중대·대대가 포병부대로 전환된 후 포병연대로 확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북한정치세력이 북한청년들을 실제로 ‘파견’했는지 여부는 미군노획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수는 평양 출신으로 1945년 9월부터 평양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1946년 4월 29일 북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당원이다. 그런데, 최창수의 「이력서」를 보면, 그는 1946년 8월 5일부터 1948년 3월 31일까지 “동북 료녕성 일대”에서 “동북인민해방군 리홍광지대 위생부 의무과장”으로 복무하였다.⁷²⁾ 최창수는 리홍광지대에 입대한 이유에 대해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 동북인민해방군에 참가한 시대.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나는 1946년 8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리홍광지대(이전의 조선의용군)에 파견되어 군의공작을 하였다. 레주의(레닌주의-인용자) 혁명로선의 정확성을 확신하며 전지의학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얻었다.

71) 김중생, 앞의 책, 109~110쪽.

72) 최창수, 「리력서」(1948.11.18), 『평양의학대학 교직원이력서』, 평양의학대학,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5(이하 출처 생략).

6. 현재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다시 평양의대 병원에 도라와 외과에 근무중이며 자기맡은 임무를 완수할라고 생각하고 있다. (밀줄-인용자)⁷³⁾

최창수가 1946년 8월에 리흥광지대에 입대한 이유는 당원으로서 “조직의 지시”, 즉 북조선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가 1948년 3월에 다시 귀국한 것도 “조직의 지시”, 즉 북조선노동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의 「이력서」 중 “군인복무”란에는 입대부대명과 입대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대명에는 “리흥광지대”, 입대 이유에는 “상부지시”라고 적혀있다.⁷⁴⁾ 중요한 점은 최창수가 리흥광지대에 입대한 사실을 스스로 “파견”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노동당⁷⁵⁾은 실제로 동북민주연군에 당원들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의사 등 중국내전에 긴급히 필요한 전문병력이었다.

결국, 북한의 동북파병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현대의 시각으로 조합한 것이다. 북한지역의 청년들은 해방 직후부터 조선의용군의 군대모집사업에 호응해 개인이나 무장대 단위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군과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정치세력은 중국내전에 긴급히 필요한 전문병력을 직접 파견하였다. 이들이 입대한 부대는 대부분 리흥광지대였다. 동북민주연군은 북한에서 파견하거나 자원입대한 청년들을 동일한 중대·대대에 배속하였다. 부대의 지휘관은 해방 직후 동북지역에서 건군사업을 펼친 조선인 간부가 맡았다. 이 가운데 일부 부대는 중국공산당군대의

73) 최창수, 「자서전」(1948.11.19), 『평양의학대학 교직원이력서』, 평양의학대학, 1949.

74) 최창수, 「이력서」(1948.11.18.), 『평양의학대학 교직원이력서』, 평양의학대학, 1949.

75) 北朝鮮共產黨은 1946년 8월 29일 朝鮮新民黨과 합당해 北朝鮮勞動黨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당원에 대한 파견과 귀국 지시는 각각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노동당이 내린 것이다.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회의록」,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118~119쪽.

확편에 따라 포병연대나 공병부대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청년들이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한 것은 해방 이후 형성된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결과였다. 1946년 1월 당시, 동북지역에 있던 중국 “홍군(紅軍)”은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와 직접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다. 평북 도보안부는 1945년 12월 제1차 각도 보안부장회의 이후부터 4회에 걸쳐 보안원 가운데 “전직자(前職者)와 불순분자(不純分子)”를 숙청하였다. 그런데, 제2차 숙청과정에서는 “1월 24일 홍군에서 각 지방에 검사공작원(檢査工作員)을 파견하여 많은 전직자를 숙청”하였다.⁷⁶⁾ 평북 도보안부는 1946년 1월 시점에 동북지역의 중국공산당군대와 직접 접촉하였고, 중국공산당군대는 도보안부의 보안원 숙청작업에 직접 검사공작원을 파견하였다.

각 도 인민위원회 보안부는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이 직접 지휘했다. 당시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장은 해방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북한 최용건이었다.⁷⁷⁾ 당시 동북민주연군 부사령원 겸 동북군정대학 교장은 소련시절 최용건과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후보중이었다.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에서 후보중은 여단장, 최용건은 부참모장, 김일성은 제1대대장이었다.⁷⁸⁾ 따라서, 평북 청년들이 리홍광지대에 입대한 것은 북조선행정국 보안국·평북보안부와 동북민주연군·리홍광지대가 상호 협의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민주연군 길동군분구는 평북 강계의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제3분소장인 최현과 협력관계를 갖고 활동하였다. 길동군분구는 1946년 겨울에 길림성 몽강(濛江)·장백(長白) 일대에서 군정훈련 중이었으나 소금 부족에 시달렸다. 길동군분구 경위중대는

76) 「제2회 각도보안부장회의기록」(1946.7.3), 『북한관계사료집』9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243쪽.

77) 「北朝鮮行政局 局長會議에서 發表한 聲明書」, 『正路』, 1946.1.3.

78) 東北抗日聯軍鬪爭史 編寫組, 『東北抗日聯軍鬪爭史』, 人民出版社, 1991, 449쪽.

소금을 얻기 위해 평북 중강진에 있는 팔로군 군의소에 경위대원을 파견하였다. 이때 경위중대장은 대원들에게 입북후 문제가 생길 경우 최현을 만나 해결하라면서 신임장을 주었다. 실제로 대원들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국경경비대원에게 체포되어 강제로 압송되었는데, 최현을 만나 신임장을 주고 풀려났다. 당시 길동군분구 사령원은 강건이었다.⁷⁹⁾ 강건이 입북한 이후 길동군분구 사령원은 1947년 5월까지 항일연군 출신 김광협이 맡았다.⁸⁰⁾

강건·김광협·최현은 모두 동북항일연군과 제88독립여단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다. 특히 최현이 보안간부훈련소 분소장으로 활동한 강계지역은 미군 정보보고서에서 평북지방 중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차출된 것으로 기록된 지역이었다. 북한청년들의 동북지역 진출에는 동북민주연군과 보안간부훈련소에서 군사간부로 활동하던 항일연군 출신들의 인맥도 영향을 끼쳤다.

결국,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군대에 입대한 것은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동북민주연군과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이 긴밀히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중·강건·김광협 등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김일성·최용진·최현 등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군사경력과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한 결과물이었다.

해방 이후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부대가 입북해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이 되었고, 북한의 청년들도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부대에 입대해 부대원이 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북한과 동북지역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

79) 김덕천, 「잊을 수 없는 나날에」,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1,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71~272쪽. 김덕천은 이때 파견된 경위대원이다.

80) 중공연변주위조직부 외,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조직사』, 연변인민출판사, 1989, 184쪽.

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와 조선의용군은 상대방의 지역에서 병력을 충원했고, 양측은 1945년 말부터 인적 유사성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2개 부대는 활동지역이 달랐지만, 민족국가를 건설해 '조선혁명'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4.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병력 구성의 성격

1946년에 형성된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조선인민군 창설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창군 초기 인민군의 간부·병력 구성은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먼저,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개천) 소장은 알 수 없고, 문화부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서철(徐哲)이었고,⁸¹⁾ 참모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광이었다.⁸²⁾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나남) 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강건이었고, 제2소 5분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용진(崔勇進)이었다.⁸³⁾ 제2소 참모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이익성이었고,⁸⁴⁾ 제2소 문화부소장은 조선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출신 임해(林海)였다.⁸⁵⁾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제3분소(강계) 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현이었고,⁸⁶⁾ 1946년 12월 당시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 3분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김창봉(金昌奉)이었

81) 『로동신문』, 1997.11.5.

8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93쪽.

83)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93~100쪽;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8권, 286쪽.

84) USAFIK, *G-2 Weekly Summary*, No.149(1948.7.16~7.23), 한림대 편, 『북한정보 요약』4, 20쪽.

85)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691쪽.

86) 『강계군 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1946.12.4), 『북한관계사료집』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61쪽.

다.⁸⁷⁾

주한미군은 1947년 4월 현재 제1사단장은 김웅(金雄)이며, 그 이름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⁸⁸⁾ 제1사단은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의 후신이다. 김웅은 1946년 3월 1일에 개최된 북·소 합동회의의 북한 측 대표자 중 한명이었다.⁸⁹⁾ 창군과정에 기여한 역할과 다른 부대·군사학교의 간부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제1소장은 김웅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영호(李永鎬)는 1946년 8월부터 “보안간부훈련소 소장”을 맡았다. 항일연군 출신 김일은 보안간부훈련소 2소와 3소 중 한 곳에서 문화부소장을 맡았다.⁹⁰⁾ 제2소 소장은 강건이었고, 제1소장을 김웅으로 추정한다면, 이영호는 제3소 소장이다. 또한, 제1소 문화부소장은 서철, 제2소 문화부소장은 임해이므로 김일은 제3소 문화부소장이다.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를 정치세력별로 구분하면,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제1소 문화부소장 서철, 제1소 참모장 최광, 제1소 3분소장 최현, 제2소 소장 강건, 제2소 5분소장 최용진, 제3소 소장 이영호, 제3소 문화부소장 김일, 제3소 3분소장 김창봉 등 8명이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제1소 소장 김웅, 제2소 문화부소장 임해, 제2소 참모장 이익성 등 3명이었다. 김일·이영호·서철·최용진·최현은 모두 1945년 9월 김일성과 함께 소련에서 입북한 인물들이다.⁹¹⁾ 김창봉은 소련에 있다가 해방후 동북항일연군 연변분견대에 소속되어 동북지역으로 파견되었다.⁹²⁾ 제2소장 강건, 제1소 참모장 최광, 제

87)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조선인민군대 이력서(조학범)』,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5.

88) USAFIK, ISNK, No.35(1947.4.15~30),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9쪽.

89)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0쪽.

90)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 선인, 2003, 115; 372쪽.

91) 김일 외, 앞의 책, 7쪽.

92) 리창, 「연변에서의 중공지방조직의 재건」,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143~144쪽.

3소 3분소장 김창봉은 해방후 동북지역에서 건당·건군사업을 펼친 인물이었다. 김웅은 동북지역에서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했고, 이익성은 제5지대장과 길동군분구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했다.⁹³⁾

1946년 11월 당시 보안간부훈련소의 주요간부는 대부분 동북항일연군 출신이었다. 중요한 점은 50% 이상의 간부가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중국국민당 보다 먼저 동북지역으로 진출해 중국공산당의 체계모니를 구축함으로써 중국혁명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이들은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결집해 중국공산당의 당단체·정권기관·군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중국혁명에 참여시켰다. 동북지역의 간부들은 북한지역에서 건국사업이 시작되자 중국공산당의 지시와 허가에 따라 입북하였다. 이들에게는 중국혁명의 임무 대신 조선혁명의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은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이었다. 병력규모는 최소 2,500명이다. 1946년 12월 25일 현재 “국경수비보병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의 총병력은 4,536명, “정보병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의 총병력은 4,443명이었다.⁹⁴⁾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는 여단규모였으므로, 보안간부훈련소의 총병력은 13,000명 미만이었다. 따라서, 보안간부훈련소 전체병력의 약 19%가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이었다. 이들은 보안간부훈련소가 창설단계에 있던 1946년 7~8월에 입북했으므로, 보안간부훈련소의 기간병력이었다.

중요한 점은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의 정치적 성격이다. 선행연구는 1946년 4~7월에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병력을 조선

93) 김중생, 앞의 책, 127~128쪽.

94) 「1946년 12월 22~23일 25군 사령관 및 그 참모부가 실시한 정보병사단 검열결과 총결자료」, 러시아연방 국방성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김광운, 앞의 책, 579~580쪽에서 재인용.

의용군부대와 일반적인 ‘조선족’으로 파악하고 있다.⁹⁵⁾ 주한미군은 1947년 4월 말 3개 보안간부훈련소에 소속된 총병력을 125,000명으로 추정하였고,⁹⁶⁾ 이중 50,000명이 조선의용군부대(Korean Volunteer Army in China) 출신이라고 분석했다.⁹⁷⁾ 그밖의 연구는 해방 직후와 1949년부터 입북한 조선인 병력문제만을 다루며, 1946년에 입북한 조선인 병력문제는 다루지 않았다.⁹⁸⁾

하지만, 1946년부터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의 성격은 조선의용군부대나 일반적인 ‘조선족’으로 확정할 수 없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인 강건이 지휘해 입북한 병력과 훈춘보안단·조양천교도대의 성격은 다양했다. 해방 직후 연변지역의 무장부대는 소련에서 넘어온 동북항일연군이 조직하였다. 해방 직후 연변에 도착한 항일연군은 적극적으로 대오를 확대해 주력부대를 맞이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연변에서 “인민무장대오”의 조직사업에 착수하였다.⁹⁹⁾

연변지역에서 군대창설을 주도한 세력은 동북항일연군이다. 강건은 연변에 도착한 후 연길현경비대대를 편성하고, 5개 연대로 확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확군계획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간부들이 연변 각지에 파견되었고, 10월 말까지 3개 연대가 조직되었다. 용정(龍井)의 제1연대장은 박락권(朴樂權), 왕청(汪靑)의 제2연대장은 최광, 화룡의 제3연대장은 박근식이 맡았다.¹⁰⁰⁾ 이중 박락권과 최광은 동북항일연군이다.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11월 12일 연변군분구(延邊軍分區)를 설립하고 강건을 사령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확군사업에 착수해 6개 경비연대를 창설하였다. 강건은 1946년 2월 길동군분구 사령원으로 임명되었고, 길동군분구 경비1여단장을 겸임했

95) 김중생, 앞의 책, 137~141쪽; 이종석, 앞의 책, 117~119쪽.

96) USAFIK, ISNK, No.35(1947.4.15~30),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32쪽.

97) USAFIK, ISNK, No.36(1947.5.1~5.15),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50쪽.

98) 이종석, 앞의 책, 106~113쪽; 張浚翼, 『北韓人民軍隊史』, 瑞文堂, 1991, 447~460쪽.

99)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6쪽.

100)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96~297쪽.

다. 그리고 훈춘보안단은 강건이 지휘하는 길동군분구의 예하부대였다.¹⁰¹⁾

강건·박락권·최광 등 동북항일연군은 해방 직후부터 입북 직전까지 연변지역의 건군사업을 주도했다. 따라서 연변지역에서 창설된 조선인부대는 동북항일연군이 육성한 무력이다. 연변군분구 정치위원으로 활동한 옹문도(雍文濤)는 연변에서 펼친 항일연군 출신의 활동에 대해 “항일련군 동지들이 먼저 이곳에 와서 사업국면을 개척했고 아주 좋은 군중토대를 닦아놓았기에 그후 많은 간부들이 룡숙 정권건설, 군대건설과 군중을 발동하는 사업에 참가함에 따라 연변은 이미 근거지의 초보적 형태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¹⁰²⁾

또한, 조양천교도대 졸업생도 보안간부훈련소에 배치되었는데, 이 교도대는 1946년 2월 조선의용군 제5지대가 설립한 군사학교였다. 교도대는 태항산 조선혁명군정학교 간부반 학생들을 골간으로 조직되었다. 그런데 조양천교도대는 1946년 3월에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면서 길동군분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¹⁰³⁾ 당시 길동군분구 사령원은 강건이었다.¹⁰⁴⁾ 길동군분구는 1946년 6월 길동군정대학·조양천교도대·화전군정학교를 합병해 동북군정대학 동만분교(東北軍政大學 東滿分校)를 설립했다. 동만분교는 6월 11일부터 “동북민주련군 독립려(東北民主聯軍 獨立旅)”라고 지칭되었다.¹⁰⁵⁾ 이로써 조양천교도대는 조선의용군의 군사학교에서 완전히 동북민주연군의 군사학교로 개편되었다. 조양천교도대 졸업생의 입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동북군정대학 교장 후보중과 길동군분구 사령원 강건이었다.

101)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7; 40~41쪽.

102) 옹문도, 「연변근거지를 창설하던 날에」,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62쪽.

103) 최수천,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시말」,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앞의 책, 503~504쪽.

104)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99쪽.

105) 최수천,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시말」,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앞의 책, 504쪽.

1946년도에 입북한 동북지역 조선인 병력은 주보중·강건·박락권·최광 등 동북항일연군이 육성한 병력이었고, 부대를 이끌고 입북한 지휘관들은 강건과 최광 등 김일성의 직계인물이었다. 결국, 이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 병력의 입북은 동북항일연군이 육성한 병력의 귀국이었고,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자신들의 육성한 병력을 기간으로 인민군을 창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은 해방 전에 한번 변경된 바 있다. 조선의용군은 원래 “조선독립동맹의 행동대오”였으나, 1943년 1월부터 그 지휘권이 팔로군 총사령 주덕(朱德)이 이끄는 동방각민족반파쇼대동맹으로 넘어갔다.¹⁰⁶⁾ 이로써 조선의용군은 팔로군의 일개 부대로 변화하였다.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에서 총 4개 지대로 확편되었는데, 각 지대는 1946년 1~6월에 모두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되었다. 제1지대는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 리홍광지대, 제3지대는 송강군구(松江軍區) 독립8단(團), 제5지대는 연변군분구 제15연대, 제7지대는 화전현 보안단(保安團)으로 개편되었다.¹⁰⁷⁾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이 1946년 1월부터 팔로군총사령부에서 동북민주연군총사령부로 넘어간 이후 조선의용군의 민족부대적 성격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최기석은 해방후 연변에서 조선의용군에 입대해 동북전쟁을 거쳐 1949년에 해남도(海南島)까지 내려간 인물이다. 그는 조선의용군의 중국공산당군대 편입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는 원래 조선의용군으로 참군했는데 그 목적이 조선의

106) 崔昌益, 『朝盟報告草案 : 華北朝鮮獨立同盟에 對한 一般의 情形』, 1943, 504~505쪽, NARA, RG 242, Doc.201238, Box 5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노획 문서.

107) 團은 국군의 연대에 해당하는 부대이다. 최강, 「조선의용군 제1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49~52쪽; 송무섭, 「조선의용군 제7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94~99쪽.

혁명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48년도 정세가 바뀌면서 조선의용군이 집체로 못나가고 간부들만 나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조선의용군이 해방인민군으로 모두 편입되었다. 그때로부터 조선의용군이라는 것이 없지 뭐.”¹⁰⁸⁾

해방 이후 조선의용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입북은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국공산당군대 편입은 조선혁명의 연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중국혁명이 1차적 목표로 부상하였고, 조선혁명은 2차적 목표로 연기되었다. 이같은 인식은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950년 5월 12일 김일성은 중국혁명에 참가했다 입북한 병사들에게 “중국의 해방과 인민중국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격려하였다.¹⁰⁹⁾ 김일성이 언급한 “국제주의전사”의 임무는 조선혁명이 아니라 중국혁명이었다. 결국, 조선의용군은 동북민주연군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조선혁명의 임무에서 멀어졌고, 이에 따라 인민군의 창설과정에서 분리되었다.

반면에,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인물들에게는 조선혁명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동북군정대학 졸업생 장한철은 1946년 8월에 입북해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에 배치되었다. 동북군정대학 교장 후보중은 입북할 졸업생들에게 파견 이유에 대해 “너희들은 중국혁명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웠지만은, 조선혁명이 수행되길래 조선에 가서 조선 건설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해달라”고 연설했다.¹¹⁰⁾

중국공산당은 해방 이후 2개 혁명을 동시에 고려했고, 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동북지역의 조선인 혁명 역량을 배분했다. 이들은 동북지역 조선인 중에서 잔류자와 입북자를 결정했다. 그리고 잔류자

108) 정현수 외, 앞의 책, 19~20쪽.

109) 김재준·리상전, 앞의 책, 304~305쪽.

110) 정현수 외, 앞의 책, 196~203쪽.

에게는 중국혁명의 임무를, 입북자에게는 조선혁명의 임무를 부여하였다.¹¹¹⁾ 또한, 북한정치세력도 창군사업을 준비하면서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력을 입북시켜 창군의 기간으로 삼고자 계획했다. 결국,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은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준국경을 혁명의 경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혁명을 추진했다.

5. 맺음말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11월 중순에 출현하기 시작해, 1946년 3~4월에 북한·중국·소련 대표자들의 합동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내전에 필요한 무기·군수물자·교통로·후방기지를 제공했고, 중국공산당은 조선혁명을 원조하기 위해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력의 입북을 지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도 1945년 10월말부터 1947년까지 개인이나 무장대 단위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하였다. 북한정부는 이들이 김일성의 지시로 입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동북지역에서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의로 입대했다. 다만, 북한정치세력이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병력을 동북지역에 파견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2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각 단위에 따라 중층적으로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했다.

1946년 8월, 북한지역에 창설된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 중 50%

111) 강건과 김광협 등 중국공산당 당원은 중국공산당의 지시와 허가 없이 입북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의 입북은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이상은 동북지역에서 중국혁명을 수행하고 귀국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간부들이었다. 그리고 보안간부훈련소의 기간병력은 동북항일연군이 동북지역에서 육성한 병력이었다. 이들은 조선혁명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인민군의 창설과정에 투입되었다. 이와 달리,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은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면서 중국혁명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인민군의 창설과정에서 분리되었다.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은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의 혁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양측은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을 동시에 고려해 자체 지역의 혁명 역량을 배분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 조선인 중에서 조선혁명에 적합한 인물들을 선별해 입북시켰고, 잔류한 조선인들을 중국혁명에 투입하였다. 또한, 북한정치세력은 중국혁명에 긴급히 투입할 인물들을 선발해 파견했고, 동북지역 조선인들을 기간으로 인민군을 창설하고자 계획했다.

양측의 혁명 구상은 혁명의 경계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은 일국(一國) 단위로 지역과 민족의 경계 내에서 전개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은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준국경을 혁명의 경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혁명을 추진했다. 국민국가는 분명하고 틈이 없는 영토적 경계를 통해 탄생한다.¹¹²⁾ 그러나, 북중 양측의 경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 않고 서로 겹쳐 있다. 이들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혁명을 지리적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구상하였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추진하였다. 6·25전쟁 전후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부대의 입북은 북중 양측이 가진 혁명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국민국가의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진행된 군사협력관계

112)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12~213쪽.

를 중심으로 간부·병력의 이동내용과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병력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이 혁명의 경계를 넘어 간부와 병력을 상호 지원하였고, 중국혁명에 참여하고 입북한 간부와 병력들이 인민군 창설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활동내용과 이들이 북·중관계에 미친 영향, 조선인들의 중국내전 참전문제, 북·중간 정치·군사협력의 기구·체계·인물, 북·중간 당관계·외교관계, 정부수립 전후 북·중관계 등을 다루지 못했다. 이상의 주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원고투고일: 2017.1.5, 심사수정일: 2017.2.20,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북·중 군사협력, 중국내전, 조선혁명, 중국혁명,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동북민주연군, 조선인민군, 보안간부훈련소, 김일성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the Border of 'Revolution' after the Liberation

- Focusing on North Korea's Assistance to the Chinese Civil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rmy -

Kim, Seon-Ho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has initiated since November 1945. In an attempt to assist the Chinese revolution,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provided China with weapons, strategic logistic materials and rear bases. Simultaneous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order to help 'the Korean revolution,' instructed Korean officers and soldiers based on Manchuria to enter North Korea. As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has formed, the cre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s well as the Chinese Civil War have set in.

Right after the liberation North Korean, youths have moved to Manchuria and joined the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Regardless of Kim Il Sung's commands, these young people joined the army in order to conduct 'the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As well,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dispatched a few special forces to Manchuria for backing the Chinese revolu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wo revolutions, North Korea and China decided to establish the military cooperation at the levels of party, military and government.

More than a half of North Korea's Security Officer Camp(SOC) cadres acted as veterans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returned. Also, the key forces of SOC were the units from Manchuria and they were commissioned to the task of 'the Korean revolution.' Meanwhile the Korean Volunteer Army in Manchuria was incorporated into the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with the mission of the Chinese revolution. Thus,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was the origin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Korean units entry to North Korea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around the Korean War.

Key words :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Chinese civil war, Korean revolution, Chinese revolution,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Korean People's Army, Kim Il Sung